

# 장기근속 교리교사 선출 기준과 포상내역

## 1) 장기근속 교리교사 선출 기준

- ㄱ. 원칙 : 교구 신임교리교사 연수를 수료하고 교리교사 교육프로그램을 참석한 그 학기부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만 3년 이상** 교리교사를 한 교사.
- ㄴ. 근속기간 : **매년 상반기 말(6월 말) 기준**
- ㄷ. 근속이 인정되는 특별 사유 : 군 복무(2년), 임신이나 출산(최대 2년)
  - ※ 특별 사유 인정은 장기근속연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근속은 인정됨.
- (예 : 2018년 상반기부터 활동 - 2018년 군 복무 - 2020년 상반기 활동 복귀, 2024년 상반기말 기준 3.5년)
- ㄹ. 타 교구에서 근속표창을 받은 교사는 그에 따르는 증빙서류 요함(상장, 수료증 등).
- ㅁ. 유소년·청소년 교리교사 활동 후 첫영성체 교리교사로 변경시 장기근속연수 이관 가능.
  - ※ 예 : 2020년 유소년 주일학교 교리교사 근속 7년, 2021년 상반기부터 첫영성체 교리교사로 이관시, 2024년 8월 현재 장기근속 근속연수는 10.5년
- ㅂ. 첫영성체 교사는 청소년사목국 및 생활성서사, 인보성체 가정교리, 노틀담수녀회에서 주최하는 교육 및 연수에 **연 1회 이상** 참석한 교사

## 2) 근속교사 인정 불가

- 현재 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로 활동하지 않는 교사는 근속 대상에서 제외됨.
- 근속교사 현황 미제출시 근속교사 인정 불가(매년 8월 말 제출).

## 3) 신임교리교사 연수를 수료한 교사들의 교육

- 신임교사 연수는 교리교사 근속의 시작연수로서 의무교육이기에 꼭 수료를 해야 함.  
(대상 : 유소년 교리교사, 청소년 교리교사, 첫영성체 교리교사)
- 신임교리교사 연수를 마친 교사들은 **교리교사 교육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함.(예: 2024년 하반기 신임교리교사 연수를 받은 교리교사들은 하반기 전체교리교사 연수 또는 25년 상반기 유소년 교안 연수, 청소년 교리교사 연수, 교리교사 신앙아카데미 중 한 가지 교육을 참석해야 함.)

## 4) 교사들의 근속 유지를 위한 교육

- 모든 교리교사들은 상반기에 실시하는 유소년 교안연수, 청소년 교리교사 연수, 교리교사 신앙 아카데미, 하반기에 실시하는 전체 교리교사 연수 중 한 과목을 들어야 함.

5) 2024/2025년 교리교사 교육프로그램

- 2024년 하반기 교육 (1회) - 신임교리교사 연수
- 2024년 하반기 연수 (4회) - 전체 교리교사 연수
- 2025년 상반기 교육 (1회) - 신임교리교사 연수
- 2025년 상반기 교육 (2회) - 교리교사 신앙아카데미
- 2025년 상반기 연수 (각 1회) - 유소년교안 연수, 청소년 교리교사 연수

6) 교리교사 교육 연 1회 이상 참석하지 않으면, 장기근속의 단절이기에 모든 경력이 무효화되며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함.

예 : 2022년 7년 근속 - 2023년 연수 불참 - 2024년 현황 근속 연수 0년 (사유 - 연수불참)

- 교육의 참가내역은 해당 기간에 대해서만 인정.

(예 : 2024년 기준 : 2023년 하반기~ 2024년 상반기까지의 교리교사 교육프로그램 참여 내역)

- 교육이나 연수는 시작부터 끝까지 참여해야 출석으로 인정됨

(지각과 조퇴는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음).

7) 장기근속 교리교사 포상내역

ㄱ. 시상 : 매년 교리교사의 날 3년, 5년, 10년 근속한 교리교사

2024년에는 10년~15년차 모두에게 포상함

ㄴ. 포상 내용 : 연차별로 구분한 강복장과 기념 선물

- 3년 : 본당신부님 감사장 / 기념 선물
- 5년 : 대주교님 강복장 / 기념 선물
- 10년~15년 : 교황님 강복장/ 기념 선물

※ 지난해 2023년 해당 공문(천광교-청소년사목국-23-042(2023.7.17.), '주일학교 근속 교리교사 현황 제출'공지)을 통해 알려드린 바와 같이 올해 2024년부터는 기념선물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기존보다 의미 있는 선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구에서는 근속교사를 10년까지만 시상합니다. 포상이 없다고 하여 봉사를 주저하지는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본 취지를 잘 헤아려 계속해서 청소년사목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